강진 천변 생태공원 조성 차질

토지 매입비·공사비 부족 공사 지연

바위 등 방치 … 집중호우때 피해 우려

홍수를 막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강진 천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5월 강진천과 춘전천이 만나는 강진읍 송전리 일대 12만여㎡에 천변 저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는 홍수 저류지로, 평상시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된다.

166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공원에 대규모 광장과 고려청자 모형의 호수조성, 수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생태학습장, 식물섬 등이 설치된다. 또 공원조성과 함께 춘전천, 송덕천 등 4개 하천(3.91km)에 대한 홍수방지 개보수사업도 추진된다.

그러나 공사 시작 6개월만에 편입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기간내 완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송덕천 개보수 공사는 착공 6개월여만에 중단돼 현재 직경 1m가 넘는 바위가 하천 바닥에 방치돼 있는 등 집중호우시 유속을 막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는 전남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송덕천 개보수 공사보다는 공원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는 공사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올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부족과 농로가 막히면서 영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생태공원 토지 매입도 전남도의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두 25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하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2011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 개편 등으로 예산지급이 늦어져 이달내에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5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기간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해남 올 첫 모내기 해남지역 첫 모내기가 10일 황산면 교동 임채봉씨 논에서 실시됐다. 해남군은 추석 전 햅쌀로 출하할 수 있도록 조생종 벼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곡성 '심청상품권' 50억 판매 달성

곡성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심청상품권<사진>'이 50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발행에 들어간 심청상품권은 지금까지 50억원이 유통돼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불황타개를 돕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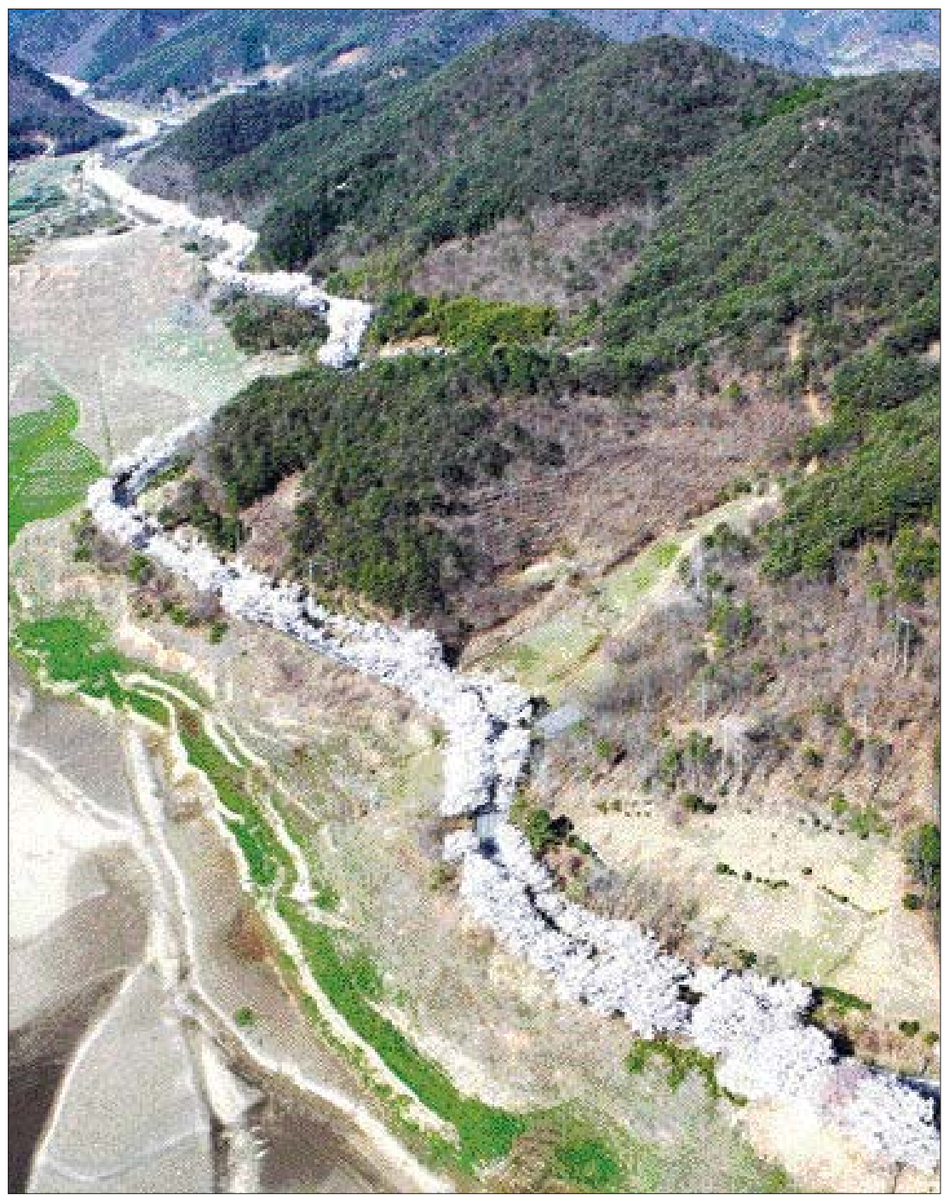
곡성군은 2006년 지역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새희망 행복경제' 등 4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심청상품권을 발행해 왔다.

심청상품권이 단기간에 높은 판매고를 올린 이유는 곡성·석곡·옥과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대상을 확대한데다 지역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는 물론 관내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회와 대기업인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상품권 사주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조형래 곡성군수는 "상품권 유통이 늘어날수록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공산품의 매출이 늘어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벚꽃 터널 5km '대원사 가는 길'



천년 고찰 '대원사 가는 길'인 보성군 문덕면 천봉산 자락 5㎞ 구간에 지난 주말부터 벚꽃이 만개했다. 지난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던 '대원사 가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왕벚나무 터널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영암 '왕인문화축제' 폐막

내외국인 95만명 '대성황'

지난 8일 폐막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내외국인 9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 등에서 열린 '2008 왕인문화축제'에 일본인 등 외국인 1만1천여명을 비롯해 모두 95만명이 다녀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행사장인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와 도기문화센터, 구림마을 등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인산인해를 이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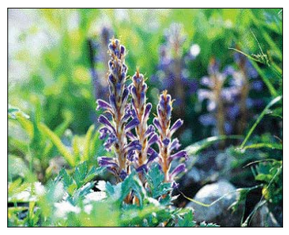
이번 축제에서는 왕인 탄생지인 영암군과 왕인 묘가 있는 일본의 히라카타시와의 우호도시 제휴 선포식을 비롯해 개막행차 '왕인 맞이', 영암의 쌀과 일본의 팥으로 만든 한·일 상생 프로젝트 '왕인천자문떡' 행사 등이 성대하고 특색 있게 진행됐다.

또 지난 해 '왕인유산 천인(千人)천자문' 특별 프로젝트에 이어 한국과 일본, 중국의 명사 1천명이 육필로 쓴 천인 천자문을 돌에 새겨 만든 왕인상징 조형물 '천인 천자문' 제막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영암의 독특한 전통 민속예술인 '갈곡들소리'와 '도포제줄다리기', '삼호강강술래' 등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백암사무소 '멸종위기 야생식물 사진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일곡 갤러리에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백암사무소 박성배 자원보전팀장이 10여 년간 설악산에서 한라산까지 전국을 돌며 촬영한 '광릉 요강꽃'(멸종위기 1급 식물) 등 작품 35점이 전시된다.

특히 박 팀장은 1928년 일본인 학자에 의해 첫 채집된 이후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세계적 희귀종 '백양 더부살이'<사진>를 70년만인 지난 1998년 백암산 자락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이규원 소장은 "생물 다양성 보전에 조그마한 보탬을 주기 위해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 한우 먹거리촌 개장

군동면 호계리, 식육점·식당 등 10개 점포 갖춰

강진군이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한우(암소)를 판매하는 먹거리 촌을 개장한다.

강진 한우 먹거리촌은 군동면 호계리에 식육점과 식당 등 10개 점포를 갖추고 오는 14일 개장한다.

한우 먹거리촌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정읍시 산외면 한우촌 등과 유사하게 최상품 한우고기를 시중가보다 25~50%까지 싸게 판매한다.

등심과 안심, 채끝의 경우 600g이 2만여원으로 정육 기준 25%, 음식점 기준으로는 밑반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먹거리촌은 송아지 단계부터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한약재 황금(黃芩)을 섞은 사료를 먹인 '강진들 황금 한우'를 판매한다.

강진군은 강진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와 자부담 등 15억원을 들여 먹거리촌을 조성했다. 군은 먹거리촌 조성으로 전라병영성, 다산초당, 청자박물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먹거리촌 개장식에서는 한우 조형물 제막식과 각설이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강진지역은 사육두수가 2만 마리가 넘고 맥우와 우두봉, 느타리버섯 등 유명 한우 브랜드를 보유한 전남도내 대표적 한우 주산지다.

/박진표기자 lucky@